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광주는 본인 부담, 서울·인천 등 무료

“이러고도 애 낳으라고...” 뿔난 엄마들

13개월된 딸을 둔 주부 이승미(32·광주시 광산구)씨는 최근 딸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병원 계산관에 ‘서울 등 필수예방접종비 무료, 광주는 5000원 본인부담’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 정작 중요한 영·유아의 건강복지 부분을 외면해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선 필수예방접종비 100%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책 지원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국가 필수 예방 접종 (10종 22회), 주요 선택 예방접종 (회당 2만~15만원)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MMR (홍역·풍진·소아마비), DTaP·IPV·Td·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원까지 낮춘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에 본인부담금마저 없애준 것이다. 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수두, 일본뇌염 등 10종 22회에 이른다.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에 거주할 경우 1회에 5000원씩 모두 1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1회당 15만원에 이르는 폐구균 접종 등 기타 예방접종비로 최대 15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고구마꽃 신기하네... 광주시 광산구 산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이 25일 학교 화단에 핀 고구마꽃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교육현안사업을 투표로 결정?

광주교육청, 역점사업 내달 원탁토론후 표결 추진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학생·교직원·교육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표결방식으로 압축, 교육현안으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으나, 중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의 대표성,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각종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0명을 한 테이블에 10명 단위로 묶어 상호토론 하도록 한 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자 구성이 시교육청의 취지와 다르게 자칫 진보나 보수의 잣대에 따라 편향되게 이뤄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 교육정책을 아무런 책임 없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학부모 김모(45)씨는 “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는 발상이 매우 격조스럽다”며 “토론회에서 잘못된 결정이 나와 정책이 실행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생 학자금 연체율 ‘심각’

광주 7.63% 전남 8.5%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일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통합당 박해자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학자금대출 연체현황’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학생 연체율은 7.63%, 전남은 8.5%였다.

이들은 논의할 광주 교육의 주요 의제는 ▲학교문화혁신 실행방안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추진사업 ▲올해 남은 기간 추진해야 할 시교육청 역점 사업이다. 500명을 한 테이블에 10명 단위로 묶어 상호토론 하도록 한 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7.8%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7.82%, 경북 7.96%, 충남 8.45%, 경남 8.54%, 전남 8.55%, 충북 8.66%, 제주 9.45%, 강원 10.05% 순이다. 박 의원은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보다 ‘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연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일반학자금 대출 연체율 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how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orecasts for different areas.

광주·전남 ‘학폭’ 피해 대상 2847명

올해 학교폭력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 광주·전남 학생은 284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통합당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 1만7970명이 학폭대책위로부터 선도 처분을 받은 가운데 광주·전남 학생은 전체의 15.8%인 2847명을 차지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이들 학생 모두 학생부 기재 대상이지만,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간 학생부 기재 현황이 유지돼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은 993명이며,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입시에 반영될 고3은 3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Joy Tour Co., Ltd.' featuring a list of travel packages to Japan, China, and domestic destinations like Jeju Island,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our Co., Ltd.' (조이투어)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China, and domestic destinations like Jeju Island,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nd legal disclaimers for the travel agency.